

# 지역농협단위 친환경농업의 추진사례 연구\*

- 안성 고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호\*\*

## A Case Study on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by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 Focused on Anseong Kosam Area -

Kim, Ho\*\*

〈 목 차 〉

ABSTRACT	IV.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발전과제 및 방향
I. 서 론	V. 결 론
II.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업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참고문헌
III.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추진실태와 발전요인 분석	

### ABSTRACT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EFA) has been mainly developed at many areas which have factors of natur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se rural areas can be developed into environmental-friendly

\* 이 논문은 농협중앙회·한국유기농업학회 주최 「지역농협단위 친환경농업 발전모델 개발」(2003. 8. 2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교수

space to preserve ecosystem, natural and cultural scenery, and environmental resources. The plan for developing a regional agriculture has to get central operating bodies, producers' organizations, a homogeneous district for farming, and so on.

This case study is focused on development directions and situations of the EFA of Kosam area in Anseong. Kosam cooperatives is a central managing body to produce and sell rice by duck-farming method, and to develop rural area. This cooperatives is one of the leading those that have developed the regional agriculture in Korea. Kosam area is at a disadvantage of natural-geographical conditions and farming size. Kosam cooperatives has been trying to overcome these agricultural weaknesses by introducing duck-farming method. They have got many excellent results through developing EFA as a regional agriculture. Kosam area will be a good place for green tourism if they can actualize the combination model of three demand factors (natural and agricultural scenic view, natural-friendly recreation and safe food) for green tourism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regional agriculture, cooperatives, green tourism

## I. 서 론

친환경농업이 자연 지리적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농촌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문화 등이 반영된 지역생태계의 보전, 자연 및 문화경관의 유지, 환경자원의 활용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즉, 지역농업의 육성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지역농업이란 농업지대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지역 내에서 농업경영 주체간의 조직화가 진행되는 일정한 지역의 농업을 말한다. 또한 농업생산 및 농산물 판매 측면에서 지역주체를 가지고 있고 지역농업의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농업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 지리적 범주이다.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추진에 있어 세 가지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생산자단체로서 지역

농협과 지역영농집단,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이 때 추진주체는 지역의 구체적인 특수성에 따라 가장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농업에 있어, 지역의 범주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의 추진주체, 생산지역 범위, 생활공간, 제도적 및 관습적 공간, 자연공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농업의 범위가 되는 지역규모로는 부락단위, 면단위, 군단위 등이 있다. 먼저, 부락을 지역범위로 하는 경우, 부락은 자연적 및 경제적 조건이 비교적 유사한 점이 많고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생산활동 및 생활활동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면단위를 범위로 한 지역농업은 농산물유통 측면에서 유리성을 발휘하기 좋은 범위이고 특히, 지역농협이 면단위로 조직되어 있어 그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군단위 지역농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농정 차원의 지역개발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및 보급이 가능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등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규모이다.

이 연구에서는 면단위를 지역범위로 하고 지역농협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례지역은 고삼농협이 주체가 되어 주로 오리농법 쌀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고삼지역은 자연 지리적 여건이 농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영세한 농업경영규모를 가지고 있는 바, 고삼농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현재는 지역농협 단위 친환경농업 추진에 있어, 선도농협으로서 그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도권 경기도라는 일반적인 입지조건에 유리성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와 산지 등 농업지역적 여건이 불리하고 소득전략 품목이 부족한 실정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II.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업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고삼농협은 지역농업의 불리한 자연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을 도입하였다. 즉 저수지와 산지 등에 의해 대규모 벼농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전략 품목이 부족한 여건을 극복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선택하였다. 안성시 고삼면 지역의 농업여건을 보면,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미 생산규모가 크지 않으며, 시설원예 등 근교농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전작작물의 비중이 낮고 참외나 느타리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소득작목의 특

화정도가 낮은 편이다. 예컨대 1ha 미만의 수도작 규모를 가진 농가의 비율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의 경우에 한우 사육 규모가 1~5두인 농가비율이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경영규모 하에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고가격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인식한 것이다. 친환경 오리농법 쌀은 차별화된 판로만 확보된다면, 단위당 비교적 고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곡 등 경종작물과 소규모 부업적 축산의 결합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영형태라고 생각된다.

고삼농협은 1994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고삼 유기농작목반을 조직하였고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공동경작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고삼농협과 우리농촌 살리기운동본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알선하였다. 즉 작목반과 개포성당 환경분과간에 오리농법 쌀을 직거래하기로 합의하고, 무농약 및 무화학비료 오리농법의 실시와 소비자 선수금 지불방식으로 전량을 거래하였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쌀 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개포성당, 반포성당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직거래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년 오리농기 행사와 농촌일손돕기, 농사체험 캠프 등을 개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산지를 방문하게 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지역단위 및 농협단위의 친환경농업 추진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예컨대 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친환경농업실천지역 및 실천농협으로서 결의를 하였고, 안성시의 특수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농업대학을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쌀의 직거래와 더불어 도농간 교류행사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자연학습장 겸 농사체험장을 개설하였으며, 대학생 환경농업 농촌활동과 도시청소년 농사체험 캠프(돈암동성당, 개포성당, 구리성당 등), 소비자 산나물캐기 행사와 오리농기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농업작목반 7개와 환경농업작목회 1개가 구성되어 있고, 오리농법 쌀은 전량 직거래 계약재배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지역농업의 테마로 하여 친환경 수도작과 유기축산의 결합을 통한 지역내 유기순환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 등 수도작과 푸른들 가꾸기, 산야초 생산 등을 통한 유기축산간 연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리농법 참여농가는 전체 조합원의 약 10% 정도이고 생산기술의 안정성 및 친환경농자재의 확보, 장기적인 친환경농업 지역의 구축 등의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94년부터 고삼 지역농업의 장기발전계획이나 지역농업 발전전략 방안을 수립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 Ⅲ.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추진실태와 발전요인 분석

#### 1. 생산실태 분석

고삼지역에서 오리농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에 5농가가 1ha 면적에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5톤을 생산하였고, 1996년에는 12농가가 8ha의 논에서 44톤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참여농가와 면적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2003년도에는 90농가의 70ha에서 오리농법 벼농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1999년과 2000년에는 참여농가 및 면적과 생산량이 약간 감소하였는 바, 각각 45농가씩이 참여하여 30ha, 156톤 및 152톤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개년동안 ha당 평균 조곡 생산량은 5.3톤으로 나타났다.

<표 1> 친환경 오리농법 쌀 생산추이

<단위 : 호, ha, 톤(조곡)>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 가 수	5	12	57	61	45	45	52	70	90
면 적(A)	1	8	45	39	30	30	39	47	70
생산량(B)	5	44	235	212	156	152	200	275	378
B / A	5.0	5.5	5.2	5.4	5.2	5.1	5.1	5.9	5.4

자료 : 고삼농협.

<표 2> 총 조합원 수에 대한 오리농법 참여농가 비율 추이

(단위 : 호,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조합원 수	599	623	620	633	651	690	1,023	1,039
참여농가 수	5	12	57	61	45	45	52	70
참여농가 비율	0.8	1.9	9.2	9.6	7.1	6.5	5.1	6.7

주 : 2000년 이후 총조합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복수조합원제의 도입 때문임.

자료 : 고삼농협.

한편 조합원 가운데 오리농법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대체로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추세이다(<표 2> 참조). 오리농법 실시에 있어, 안정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1997년에는 9.2%이었고 1998년에는 9.6%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참여농가가 감소하고 조합원 수는 증가함에 따라 참여비율은 각각 7.1%와 6.5%이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조합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복수 조합원제의 도입에 따른 것인 바, 농가를 기준으로 오리농법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약 10% 정도로 추측된다.

이처럼 친환경 오리농법에 의해 생산된 쌀은 계약재배 방식의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sup>1)</sup>(서울 및 수원교구 등)와 전량 직거래하고 있다. 생산자 측은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결의문”, 소비자는 “우리농 소비자 결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의 실천내용을 결의하는 형식이다. 또한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가 고삼오리쌀 직거래 합의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 2. 고삼농협의 사업량과 당기순익 추이 분석

지역농업 육성주체로서 고삼농협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신용사업 및 판매 사업 등의 사업량 변화추이와 손익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사업량 변화추이 분석

고삼농협의 사업량 변화추이 가운데 신용사업 부문을 보면, 최근 들어 사업신장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고삼농협의 사업량 및 손익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990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사업량	신용	총수신	2,970	4,715	10,710	11,465	14,247	18,221	18,774	22,282
		총여신	2,583	4,348	8,022	8,508	8,871	10,894	13,260	15,899
	농산물판매액		899	2,429	4,156	5,476	7,253	9,917	10,000	13,061
	구매사업취급액		1,353	1,692	3,588	3,740	2,699	2,197	2,289	2,059
손익	총수익		2,482	3,150	7,688	9,879	9,437	12,942	15,631	17,220
	총비용		2,444	3,099	7,639	9,827	9,395	12,864	15,505	17,081
	당기순익		38	51	49	52	42	78	126	139

주 : 여신 및 수신은 평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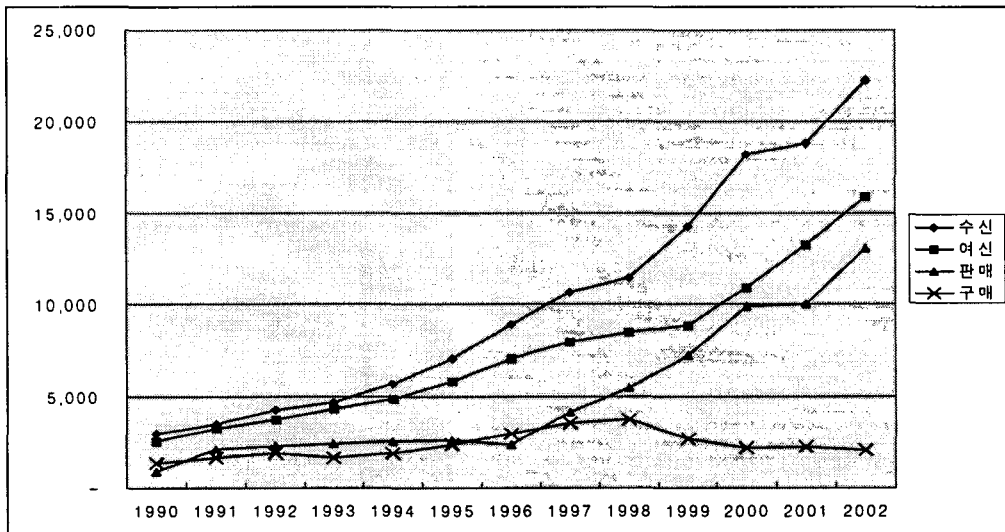
자료 : 고삼농협.

1)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1995년 6월에 결성되었으며, 가톨릭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농촌과 도시가 하나되는 도농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목표는 첫째, 농촌에는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인 우리농마을을 건설하고 둘째, 도시에는 본당 단위로 생활협동조합인 우리농생협을 건설하며 셋째, 도농의 책임연대를 추진하는 것임(고삼농협 외, 1998).

그러나 총수신의 증가폭에 비해 총여신의 증가폭이 적은 편인 바, 양자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신용사업의 경우에 1990년 총수신 2,970백만원과 총여신 2,583백만원이었는데 2002년에 각각 22,282백만원과 15,899백만원으로서, 각각 약 7.5배와 약 6.2배 증가하였다.

신용사업의 증가추세를 오리농법의 본격적 도입년도인 1995년과 안정적 정착년도인 1997년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총수신은 각각 약 3.1배와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여신은 각각 약 2.7배와 약 2.0배 증가하였다. 특히 총수신은 1998년부터, 총여신은 199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액 추이를 보면, 1990년에 899백만원인데 비해 2002년에는 13,061백만원으로서 약 14.5배 증가하였고, 1995년의 2,623백만원에 비해서는 약 5.0배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대비 1995년에는 2.9배 증가하였는데 오리농법의 실시와 함께 농산물 판매액 증가율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농산물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연도는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사업의 추이를 보면, 1998년에 3,740백만원을 정점으로 하여 199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고삼농협의 사업량 변화 추이

#### 나. 당기순익 추이 분석

고삼농협의 신용사업 및 판구매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수익 및 총비용도 1990년에 비해 2002년에 각각 약 6.9배와 약 7.0배 증가하였다(표 4). 1990년의 총수익 및 총비용은 각각 2,482백만원과 2,444백만원이었는데 2002년에는 각각 17,220백만원과 17,081백

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총비용 및 총수익과 당기순익의 추이를 1990년 대비 1995년과 1995년 대비 2002년 등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후기에 더욱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총수익 및 총비용의 증가 폭은 전기에 각각 1.84배와 1.85배이었음에 비하여 후기에는 각각 3.78배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당기순익은 전기에 1.21배 증가하였고 후기에는 3.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기순익의 추세를 보면,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당기순익은 1990년에 38백만원에서 1995년에 46백만원, 1999년에 42백만원이었다. 그런데 2000년에는 78백만원,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26백만원과 139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당기 순익의 연 평균 증가율은 1.15이었는데 이는 연 평균 약 15%씩 성장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고삼농협의 총수익 및 총비용 추이

(단위 : %, 백만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02/90	95/90	02/95
예 대 비 율	87.0	82.2	59.8	70.6	71.4	-	-	-
총 수 익	2,482	4,559	12,942	15,631	17,220	6.94	1.84	3.78
총 비 용	2,444	4,513	12,864	15,505	17,081	6.99	1.85	3.78
당 기 순 익	38	46	78	126	139	3.66	1.21	3.02

주 : 여신 및 수신은 평균.  
자료 : 고삼농협.

#### 다.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계수화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그 값은 -1에서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정(positive)의 상관관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부(negative)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상관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rho_{x,y} = Cov(X, Y) / \sigma_x \cdot \sigma_y$$

여기에서,

$$-1 \leq \rho_{x,y} \leq 1$$

$$Cov(X, Y) = 1/n \cdot \sum (X_i - \mu_x)(Y_i - \mu_y)$$



〈표 5〉는 오리농법 쌀 생산량 및 농산물 판매액, 총수신 및 총여신과 총수익 및 당기순익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체로 두 부분의 변수간 상관계수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쌀 생산량과 총수익 및 당기순익간 상관관계는 각각 0.7381과 0.5398로서,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오리농법 쌀 생산량과 당기순익간 상관계수가 0.5398로서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농산물판매액과 총수익, 농산물판매액과 당기순익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9770과 0.8613으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상관계수 분석(1995년~2002년)

구 분	쌀 생산량	농산물 판매액	총수신	총여신
총수익	0.7381	0.9710	0.9770	0.9782
당기순익	0.5398	0.8460	0.8613	0.9439

또한 총수신 및 총여신도 총수익 및 당기순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총여신과 총수익간 상관계수는 0.9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수신과 총수익간에도 0.9770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총여신과 당기순익간 상관계수는 0.9439로서 총수신과의 계수(0.8613)보다 높았다.

따라서 지역농협단위 친환경농업 추진에 있어,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판매활동과 수신 및 여신이 조합의 총수익 및 당기순익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발전요인 분석

고삼농협은 친환경농업을 테마로 하여 지역농업을 육성해왔으며, 선진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성공요인은 지리적 및 영농여건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합성, 지역농업 주체의 역량, 추진주체와 구성원간의 합의 도출, 안정적 판로의 확보,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농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 등인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농업의 지리적 여건 및 영농조건이 친환경농업의 도입 추진에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삼지역은 산간지역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대규모 평야지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농가경영규모도 소규모이다. 그런데 이는 산지와 평야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삼농협은 이러한 농업지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삼지역을 친환경농업지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대로 조성하였다. 규모화 및 대량생산에 불리한 지역적 여건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켜 활용한 것이다.

둘째, 지역농업 추진에 있어, 주체적 역량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삼농협의 조합장 및 임직원은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의 성과를 획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 즉 조합 임직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리고 쌀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업의 친환경농업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고삼농협은 친환경 오리농법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 및 유통의 어려움을 “참여하는 조합원”, “봉사하는 조합”이라는 운영 방식을 통해 극복한 것이다.

셋째, 지역농업 경영방식으로서 친환경농업을 도입 추진하는 데에 있어, 지역농협과 지역주민(조합원)간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97년에 대의원총회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지역 및 실천농협에 대해 결의하였고, 조합원의 합의를 도출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기념조형물을 제작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넷째, 친환경 오리농법 쌀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유통문제를 해결하였다. 소비자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쌀의 차별화된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차별화된 가격을 수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도농간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도농간 인적 친밀감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판로가 안정되고 확대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오리농기 행사와 소비자의 농촌일손돕기, 오리고기 먹기, 메뚜기 잡기대회, 도시청소년 농사체험 캠프, 소비자 산나물캐기 행사, 대학생 친환경농업 농촌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교류행사는 친환경농업을 그런 투어리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IV.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발전과제 및 방향

### 1. 발전과제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농협 및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쌀 중심의 경종농업에 유기축산을 도입하여 지역 내 유기순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유기축산은 지역 내 친환경농업 체계(경종+축산)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부문

이다. 고삼농협은 유기축산으로서 한우와 돼지, 닭 등을 주 품목으로 육성하고 오리와 흙염소 등 다양한 품목을 도입함으로써 다품목 소량 생산체제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전략은 부위별 진공 소포장하여 냉장육을 직거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식관리 방법, 사료공급 방안 및 조사료 확보 방안, 출하관리 및 출하가격 결정 원칙, 생산농가의 조직화, 경종농가와 결합방식, 육가공(도축 및 정육)과 포장방안, 자금조달 방안 등이 수립되어 단계적 및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참여농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유통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오리농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약 10% 정도인 바,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확대추세에 비추어 참여농가의 증대에 부응하고 고삼지역을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더욱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차별화된 유통경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생협 관련 조직이나 기타 소비자조직,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직매장 등 가격차별화가 가능한 판로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농업의 주체인 농협의 경영 안정화가 필요하다. 고삼농협의 경우, 신용사업과 농산물판매사업, 총수익 및 총비용 등 조합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흑자를 실현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원의 전문화를 통한 사업비용의 절감, 총수익 및 총비용간 격차의 감소, 예대비율의 상승을 통한 조합 수익의 증가로 경영수익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친환경 오리농법 생산기술 체계의 정립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자재의 원활한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기술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개발 보급되어 왔는 바, 지역별 및 지대별 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술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체계의 정립과 생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테마별 기술매뉴얼이 개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나아가 친환경농자재 판매장 등 구입이 용이한 유통채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논농업 직불제 중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가운데 쌀의 경우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 논 직불단가는 ha당 50만원이고, 인센티브로서 유기 및 전환기는 ha당 27만원, 무농약은 ha당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농업의 한 형태로서 오리농법 쌀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바, 직불단가 자체의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의 금리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2. 발전방향

지역농업으로서의 고삼 친환경농업 발전과정을 발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도입기와 정착기, 성장기, 완성기 등 4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경영성과적 지표로서 생산량 및 판매액과 당기순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먼저 도입기는 1995년부터 1996년, 정착기는 1997년부터 2000년, 성장기는 2001부터이다.

고삼지역의 친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형태는 생산자-소비자 교류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농교류 활동을 중심축으로 하여 쌀 생산 및 유통(직거래 운동)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오리농기 행사나 일손돕기 등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생산과정의 신뢰체계를 구축해가는 방식인 것이다. 또한 공급물량과 가격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의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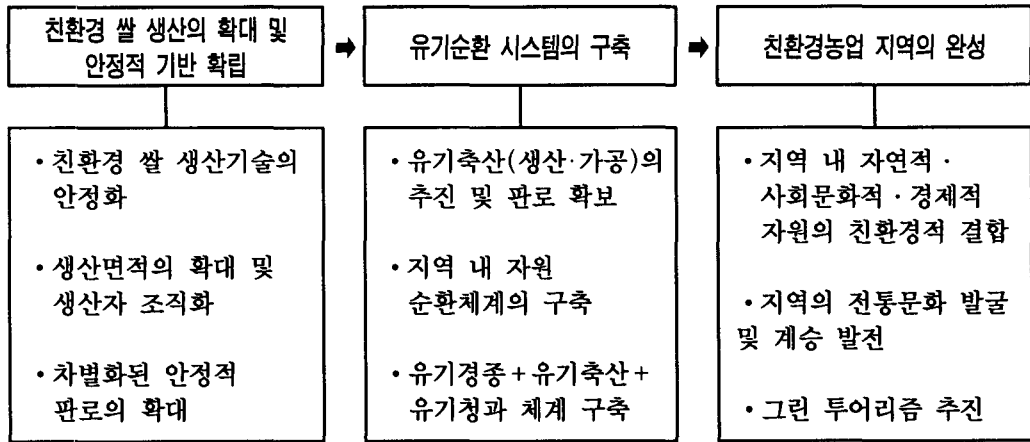
	도입기	정착기	성장기	완성기
연도	1995~1996	1997~2000	2001~----	----
생산량	24.5	188.8	237.5	----
판매액	2,515	6,700.5	1,1530.5	----
당기순익	49	55.3	132.5	----

주 : 생산량(톤), 판매액(백만원), 당기순익(백만원)은 해당 연도의 평균치임.  
그리고 1차 성장기 자료는 2001~2002년 평균임.

<그림 2> 고삼농협 친환경농업 발전단계

그러나 궁극적인 발전목표인 “고삼 친환경농업지역”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시스템의 발전적 모형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모형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삼지역 전체를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면적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기축산의 도입으로 유기경종+유기축산의 결합과 지역 내 유희자원 및 부산물 자원을 활용하는 유기순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업지역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다음에, 지역 내의 사회문화적 및 자연적 여건을 경제적 기반과 결합시켜 고삼지역을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다.



〈그림 3〉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쌀 생산을 더욱 확대하며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친환경 쌀 생산기술체계 개발·정립, 선진지역의 기술 도입 등에 의한 생산기술의 안정화가 가장 급선무이다. 그리고 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참여농가의 증가와 생산면적 및 생산량의 확대를 추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다양한 판로의 확보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판로의 확대는 소비자조직 등 기존의 채널을 안정적인 판매처로 유지하면서, 가격차별화가 가능한 직매장이나 다른 소비자조직 및 판매조직을 개발해 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친환경 생산시스템 즉 유기 순환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sup>2)</sup> 우선 유기축산을 도입하여 고품질 청정 브랜드육 생산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소지역 단위로 번식 및 비육 일관 경영체계를 갖추고 고품질 사육방식을 개발하여야 하는 바, 농가간 협력을 통해 영농·사육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내의 유헴자원을 활용하고 부산물 자원의 원활한 순환체계를 갖추며,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해 가는 방향이다. 이를 통해 “고삼 친환경농업 지역”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때, 유기순환 시스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내 유헴자원을 이용하여 경종 부문에 신규작물 도입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고, 축산부문에는 사료포와 조사료원(산야초 등)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종부문에서는 축산부문에 뽕짚과 각종 조사료원을 공급하고 축산부문은 경종부문에 축분을 이용한 유기퇴비를 공급한다.

2) 유기축산(특히 한우)의 생산 및 유통사업계획과 친환경 생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삼농협의(1998)를 참조.

셋째 단계로서, 고삼지역 전체를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완성시켜가는 것이다. 고삼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상호 결합하는 방안이다. 산지와 숲, 저수지 등의 자연자원과 지역의 전통문화 및 예술작품 등의 지역자원,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및 산업적 조건(오리농 쌀 생산단지, 자연학습장 겸 농사체험장, 친환경농업 시범포 등)을 하나의 테마로 묶음으로써 “고삼 친환경농업 지역”을 완성시켜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을 유도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농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바, 지역농업의 생존전략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추진 단위가 과거의 농가 개념에서 지역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한 소지역 단위의 추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리농법 등 친환경 논농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안성시 고삼농협이 추진주체가 되어 전개하고 있는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발전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삼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지리적 여건, 사회문화 및 예술적 기반과 친환경농업 등 산업적 여건이 결합되면 그린투어리즘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3가지의 주된 변수인 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즉 전통 계승적인 관광자원, 자연친화적인 휴양 및 휴식처, 안전한 식품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삼 지역농업이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자연적 및 문화적 자원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고삼 지역농업 및 농촌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고삼농협. 결산보고서. 각년도.
2. 고삼농협 외. 1998. 직거래 조직화와 21C ‘고삼’ 지역농업 발전전략.
3. 김 호. 2003. 안성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업 발전모델. 지역농협단위 친환경농업발전모델 개발. 농협중앙회·한국유기농업학회.

4. 농림부. 200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5. 박현태 · 강창용 · 정은미. 199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 1994. 고삼농협 장기발전계획(안).
7. 사단법인 정농회. 1997. 제2차 아시아 청등오리 벼농사 농민교류회.
8. 유정규. 2003. 지역농업(론)과 지역농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 모심과 살림연구소 발표 자료.
9. 장원석. 2003. 참여정부의 농정방향과 과제. 2003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